

광주시, “인플루엔자 유행… 예방접종 하세요”

10월말 의사환자 전년보다 3배 증가… 예년보다 2개월 빨리 유행 11월초 접종 적기… 어르신·임신부·어린이 등 위험군은 무료 접종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올해 인플루엔자 환자가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참여를 당부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43주차(10월 19~25일)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은 13.6명으로 전년동기(3.9명) 대비 3배 이상 높았다. 질병관리청은 앞서 40주차 인플루엔자 의사환자 분율이 12.1명으로 유행기준인 9.1명을 초과함에 따라 지난 10월 17일 유행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플루엔자는 보통 12월에 환자가 늘어

나는데, 올해는 2개월가량 빠르게 유행이 시작돼 환자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려된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1월 초가 접종 적기라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서둘러달라고 당부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은 항체 형성에 약 2주가량 소요되므로 본격적인 유행 전 미리 예방접종을 받아야 최대 효과를 볼 수 있어서다. 광주시는 예방접종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7일(빛고을노인건강타운)과 10일(효령

노인복지타운)에서 보건소·감염병관리지원단과 합동으로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홍보 캠페인을 실시한다. 광주시는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위험도가 높은 65세 이상 어르신·임신부·생후 6개월~13개월 어린이를 대상으로 2026년 4월까지 무료 예방접종을 시행한다. 장애인·의료급여수급권자·국가유공자 대상 무료 접종도 12월5일까지 진행한다. 광주지역 지정의료기관 690곳에서 접종이 가능하며, 세부 정보는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윤선 공공보건의료과장은 “올해 인플루엔자 유행이 예년보다 이르게 시작된 만큼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은 반드시 예방접종에 참여해달라”며 “적절한 실내 환기,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기본적인 감염병 예방수칙도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겨울철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감염병 예방수칙은 ▲기침·재채기 할 때 입과 코 잘 가리기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 자제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증상 발생 시 즉시 진료받기 등이다. /전광훈 기자



광주 서구 골목상권 혁신모델로 ‘국무총리상’ 지방자치 30년 기념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서 수상

광주광역시 서구(구청장 김이강)가 ‘골목상권 혁신모델 구축’으로 전국 지자체 최우수 정책이 선정돼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7일 국회 사랑채에서 민선 지방자치 30년을 기념해 참좋은지방정부협의회와 경기 광명시가 공동으로 개최한 ‘2025 참좋은 지방자치 정책대회’에서 ‘골목경제 119 프로젝트’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는 우원식 국회의장,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전국 단체인 지방자치단체가 우수정책을 발표하고 26개 지자체가 국무총리·국회의장·행정안전부장관상 등을 수상했다. 서구는 지역경제 회복의 해법을 ‘골목상권’에서 찾아 주목을 받았다. 전국 최초로 지역 전체를 골목형상권으로 지정하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카페·식당·병원·주유소 등으로 대폭 확대해 주민 누구나 일상 속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

다. 서구는 기본 할인 10%에페이백 이벤트까지 최대 20% 할인혜택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꾀한 결과 상인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서구민들은 올해만 약 100억 원 이상의 생활비 절감 효과를 체감했다. 서구에서 시작된 골목형상권이 지정과 온누리상품권 활성화 정책은 광주시 전체 119 프로젝트’ 성과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 서구는 현재 121개 골목형상권을 운영 중이며 구청장 직무실에 ‘골목경제119 상황판’을 설치해 사업추진 현황을 상시 점검하고 있다. 또한 상인 의견을 실시간으로 청취하기 위해 ‘골목경제119폰’을 개통해 직접 소통을 강화하고 18개 동을 순회하며 운영하는 골목집무실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 있다. 이번 정책대회에서도 ‘행정·상인·주민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이 서구 성공의 핵심 요인으로 높이 평가됐다. /박석우 기자

전남도, 국회 예산 심사 돌입… 국고 증액 확보 총력전 강위원 부지사, 한병도 예결위원장·예결위·상임위에 현안 건의

전라남도는, 국회가 예산 심사에 돌입함에 따라 전남 지역구 국회의원에 이어 예결특위와 각 상임위를 잇따라 방문, 지역 핵심 현안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집중 설명하는 등 국고 증액 확보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도에 따르면 7일 강위원 경제부지사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를 찾아 한병도 예결위원장,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황정아, 김한규, 정진욱 예결위원과 조정식 위원 등을 잇따라 면담했다. 이번 일정은 앞서 지역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한 건의 활동에 이어, 상임위원회와 예결특위 차원의 증액 반영을 이끌

기 위한 ‘2단계 전략 대응’이다. 강위원 부지사는 산업·과학기술·환경 등 상임위별 주요 현안 30여 건을 조목조목 설명하며, 전남도가 추진하는 우주·에너지·탄소중립·해양관광·산업전환 등 미래 신성장 동력 분야 예산 지원 필요성을 강하게 호소했다. 한병도 예결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는 전남의 핵심 사업인 ▲호남고속철도 2단계 ▲국립 김 산업진흥원 설립 마스터플랜 수립 ▲2026 여수 섬 박람회와 연계되는 2026년 섬 방문의 해 추진 등 13건에 대해 국회 심의 단계에서 증액되도록 깊은 관심을 요청했다.



안호영 환경노동위원장과 면담에선 ▲한국형 해상풍력(K-WIND) 실증사업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사업 ▲순환형 매립시설 정비사업 ▲여수 도원사거리·국동지구 하수도 정비사업 등을 설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황

정아 의원을 만난 자리에선 ▲민간전용 우주발사체 엔진연소시험시설 구축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 전시시설물 개선 ▲국립 나주 에너지 전과학과 건립 ▲조선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R&D) 등 총 4건의 주요 사업을 설명했다. /염성호 기자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겨울철 폭설을 대비하여 6일 효덕IC공용주차장에서 17개 동 직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을 대상으로 소형제설장비 및 휴대용제설기, 차량용 제설살포기에 대한 사용방법 및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그동안 폭설시 주요 도로를 제설차량을 이용했지만 인도나 골목길은 빗자루와 낙

광주 남구, 소형제설장비 사용법 및 안전교육 실시 17개동·행정복지센터 마을제설반, 지역자율방재단과 협력 제설 추진

가래 등으로 수작업에 의존하다보니 신속한 제설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남구는 앞으로 소형제설장비 등을 활용하여 공무원 및 지역자율방재단원과 함께 겨울철 강설

및 폭설시 적극 운영할 계획이다. 소형제설장비 운영시 수작업 위주의 제설작업이 이루어지던 인도, 어린이보호구역, 마을안길, 경로당 입구 등의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 보다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작업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구는 “올해에도 주민의 불편 최소화를 위해 주요 도로뿐만이 아닌 보행로, 마을안길 등 이면도로 후속 제설에 총력을 다하겠다”며 “주민들께서도 폭설 시 내 집 앞, 내 점포 앞 눈 치우기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임채일 기자

광주 동구(구청장 임택)는 자립 준비 청년(보호종료 5년 이내)들의 의료비 경감을 위해 무등산 중심사(주지 중현스님) 기부금을 지원받아 ‘의료 실손보험 가입’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자립 준비 청년들이 갑작스런 질병이나 상해로 겪을 수 있는 의료비 부담감을 완화하고,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이 사업으로 현재 ‘자립 준비 청년 의료

동구, 자립 준비 청년 의료 실손보험 가입 지원 미래 위험을 대비한 현실적인 의료안전망 형성

비 지원 사업’의 한계점(선별급여·전액 본인 부담금·비급여 제외)을 보완해 청년들의 안정적인 건강관리와 미래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현실적인 의료 안전망을 형성했다. 의료 실손보험 가입 지원 대상자는 관내 자립 준비 청년 30명으로 중복가입자

등을 제외한 대상자로 11월 5일부터 2026년 11월 4일까지 1년간 가입을 지원한다. 보험의 담보 내용으로 질병·상해 급여, 비급여, 3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다. 임택 동구청장은 “지역사회 따뜻한 후원과 연대 속에서 마련된 안전망에 감사사를 표하며, 자립준비청년이 건강해야 자

립도 성공할 수 있다”면서 “우리 청년들이 더 큰 희망을 갖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는 자립 준비 청년을 위한 지원사업 운영으로 ▲민관 자립지원협의체 ▲원스톱 자립 지원 서비스 이음톡! ▲자립 준비교실 ▲자립역량강화사업 ▲후원물품 지원 등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철수 기자

북구,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 위원 공개모집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건강주치의제’ 시행을 앞두고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 위원을 오는 12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모집은 「광주광역시 북구 건강주치의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강주치의제’의 원활한 추진과 정책 자문, 지역 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기 위한 것이다. ‘건강주치의 지원 협의체’는 ▲건강주치의 추진 전략 및 정책에 관한 사항 ▲사업계획 수립 및 성과 평가 ▲관련 기관 연계·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협의체 위원은 총 20명 이내로 구성될 전망이다. 위원장인 보건소장과 북구 의사회장, 건강보험공단 광주

북부지사장 등 3명이 당연직 위원을 맡고 관련 부서장, 구의원, 의료 관계자, 공개모집 위원 등 17명을 위촉한다. 전체 위원 중 공개모집 인원은 5명이며, 건강 및 보건의료 관련 학계·연구기관 종사자, 보건 의료·복지 관련 단체 추천자 또는 건강주치의제에 관심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12월 18시까지만이며, 방문·우편·이메일(doremi1551@korea.kr) 또는 팩스(062-510-1237)로 접수할 수 있다. 심사는 제출 서류를 기반으로 신청자들의 전문성·경력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위원 선정 시에는 성별 균형과 타 위원회 중복 참여 여부 등도 함께 고려된다. /송현근 기자



**광주광역시
광산구의의회**

**소통하는 열린의회
현장중심 실력의의회**

“좌석은 절반, 불편은 두배”

광주송정역 고속열차

증편이 답이다